

광주 희망나무·의료진 봉사에 반한 캄보디아 '오지마을' 주민들

# “생애 첫 진료에 우물 선물 한국은 정말 고마운 나라”

김봉참주=글·사진 최권일기자

“이제 수 km까지 떨어진 곳에서 물을 길러 오는 불편은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생편수에 처음 받아보는 진료까지 한국 너무나 고맙습니다”

광주의 따뜻한 온정이 캄보디아의 한 ‘오지마을’을 감동시켰다. 지난 15일 오후 캄보디아 광봉참주 감시엄시 트롬랭족 마을에서는 양한 김봉참 주지사과 마을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 우물 준공식이 열렸다. 광주의 다문화가정 지원단체인 (사) 희망나무가 마을의 식수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미화 1700달러(180만원)를 들여 파 준 우물이다.

이 마을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이주여성 치이속근(25)씨가 “천정 마

음에 우물이 꼭 필요하다”는 말을 전해들은 희망나무 측이 기획한 사업이었다. 그동안 이곳 주민들은 물을 거르기 위해 수 km 떨어진 옆 마을로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불편 탓에 일부 주민들은 아예 빗물을 모아 식수로 사용하고, 웅덩이에 고인 물로 목욕을 하고 있어서 각종 질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 내과 안과 치과 등 500명 치료 받아

따라서 이날 준공된 우물은 앞으로 이곳 300여 가구에 주민 1000여 명의 생명이 됐다. 먹음 감는 동네 아이들의 훌륭한 놀이터가 될 셈이다.

양한 주지사는 “한국은 정말 고마

운 나라다”라며 “많은 캄보디아 주민들이 한국에 고마움과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14일에는 한국의 의사들이 의료 봉사활동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수백 명의 환자들이 몰려들어 복재봉을 이뤘다. 아이안과 윤장현·서정성 원장과 미르치과 박석인·정병초 원장, 김운성 조대병원 내과 교수, 한승표 우리아동 소아과 원장, 류

근창 조선대 교수 등 14명으로 구성된 의료진은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안과, 치과, 내과, 소아과 등 여러 진료 과목에서 모두 500여 명의 환자를 봤다. 매일 오전 8시30분에 시작한 진료는 물러드는 환자 때문에 오후 5시에 간신히 끝을 낼 정도였다. 평소 병원을 찾지 못하는 ‘오지마을’ 탓에 평생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한 고질적 질환에 안고 있는 환자들이 많아 의료진들의 고생은 더 했다.

안과는 대부분 결막염과 각막염 등 감염으로 인한 눈병 환자들이 많았고, 내과와 소아과는 폐렴성 관절염과 감염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익상편이 각막을 모두 덮어 양 눈 모두 앞을 보지 못하는 한 환자는 서정성 원장의 수술을 받은 뒤 “앞을 볼 수 있게 됐다”며 다음날 의료진을 다시 찾아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



아이안과 윤장현 원장이 환자를 진료한 뒤 캄보디아 현지 통역을 통해 환자의 질환을 설명해주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캄보디아 광봉참주 감시엄시 트롬랭족 마을에서 양한 김봉참 주지사과 마을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희망나무가 파 준 마을 우물 준공식이 열렸다. 양한 주지사(오른쪽에서 다섯번째)와 봉사팀, 이주여성 치이속근씨 부부가 우물을 퍼 올리고 있다.

## 물 길기위해 수 km 떨어진 옆마을 안가도 돼

도 했다. 치과의 경우는 대부분 충치와 잇몸병 질환자들이 많았다.

박석인 원장은 “주민 대부분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치과를 가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충치와 잇몸병을 모두 갖고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아이들을 상대로 구강 교육을 하며 치약과 칫솔을 나눠줬지만, 아이들 모두 단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것이어서 의료진이 애를 먹기도 했다.

조선대 병원 김운성 교수는 “주민 대부분이 감염으로 인한 피부염과 중이염 등 후진국형 질환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의료진 이외에도 행사 및 지원팀의 활동도 눈에 띄었다.

봉사팀은 35도를 웃도는 기온에 햇볕에 나서면 숨이 막힐 정도의 찜통 더위에도 아랑곳 않고 아이들을 위한 영화상영에 풍선 아트, 미용 지원, 방역활동까지 차질없이 진행했다.

문상필 광주시의원은 이번 의료봉사활동에 3000여만 원 상당의 의료품을 지원해 마을 주민들에게 많은 의약

품을 나눠줄 수 있었다. 이런 봉사팀에 게 일부 주민들은 옥수수를 쪄 나눠주는 등 작은 정성을 표시하기도 했다.

주민 마이주이(남·51)씨는 “낯선 한국인들이 마을에 생명수인 우물을 파주고, 생애 처음 받아보는 진료까지 해주는데 너무 고마울 따름”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인 의료진이 자주 마을을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ki@kwangju.co.kr

# “부산저축銀, 신안땅값 10배 부풀려 매입”

한나라 국조특위 고승덕·신지호 의원 주장  
“행방 묘연한 1200억 중 상당액 비자금 사용”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신안군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 토지를 사들이면서 공시지가의 10배에 이르는 대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 소속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6개사는 2005~2009년 신안군 일대 사업 예정지 2096필지를 1205억원을 들여 사들였다. 전체 공시지가는 지난해 기준 213억원에 불과했다.

고 의원은 “2005년 이후 매입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공시지가 대비 10배가량 높은 가격을 지급한 ‘땅 사주기 프로젝트’라며 “당시 정권 실세들과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차명으로 토지를 사들인 뒤 거액의 시세

차익을 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신안리조트 부지 지번 전체를 홈페이지에 공개,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투기세력의 전모를 밝힐 제보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또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 부산저축은행이 SPC 6곳에 대출한 금액이 작년 9월 기준 2298억원으로, 토지매입 비용(120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1100억원을 대출이자와 투자자문수수료 등으로 사용한 점이 주목됐다.

그는 “부산저축은행은 ‘던키’라는 신종 대출법을 사용했는데 대출이자 300억원, 투자자문수수료 300억원, 개발계획 수수료 100억원 등이 부산저축은행으로 다시 유입됐다”

며 “이런 변칙으로 신안프로젝트를 고수의 사업으로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200억원 가량은 자금의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고 의원은 주장했다.

또 같은 저축은행 국조특위 소속인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부산저축은행은 2005년부터 신안군 개발사업에 8개 SPC를 설립해 3300억원을 대출했지만, 장부상 토지매입 대금 1300억원과 대출 원리금 상환금 800억원을 제외한 1200억원은 행방이 묘연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 1200억원 중 상당액이 비자금 등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임원들이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에 가까운 후순위를 발행, 2800여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문동성 前 경남은행장 체포·임건우 前 대표 조만간 소환

보해저축銀 비리

보해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문동성(62) 전 경남은행장을 체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보해저축은행의 불법 자금이 대주주인 보해양조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임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했으며 조만간 임건우 전 보해양조 대표이사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감사)는 20일 거액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로 문 전 행장을 체포하고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문 전 행장은 행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09년 4월께 삼화저축은행 대주주이자 금융브로커인 이철수(52·수배)씨와 오문철(59·구속 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으로부터

200억원을 대 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삼화저축은행 인수 자금으로 이 돈을 대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등은 당시 경남은행 장모 부장에게 3억원을 전달했으며, 이 가운데 1억원은 장 부장이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공정성 강화

내년부터 재건축 조합 비리를 차단하고자 대의원회가 추천하는 시공사 수를 대폭 늘리고 입찰자격을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경

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11년 기업현장 예로 해소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할 때 조합

대의원회가 권한을 남용하는 비리를 근절하고자 선정 기준을 개선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기준을 개정해 대의원회가 추천하는 시공사 수를 현재 3개 이상에서 6개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연합뉴스

# 남해안의 대표작!

내와 현대건설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기대하신 만큼 기다리신 만큼 특별한 프리미엄이 가득한 엑스포 힐스테이트에서 수준 높은 생활의 여유를 누리십시오

## 명품휴양주거단지 - 엑스포 힐스테이트

**7월 13일(수) 분양공고**

7월 22일  
특별공급 접수

7월 25일·26일·27일  
1·2·3순위 접수

8월 10일  
당첨자 발표

8월 24일  
계약체결

**엑스포 힐스테이트 샘플하우스 오픈 기념으로 고객님들께 특별한 행운을 드립니다!**

**EVENT**

“올 여름 휴가 준비 끝!”

계약하신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한 분께 **300만원** 상당의 **레저휴양 고급 캠핑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분양상담실 및 샘플하우스를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 본 광고에 포함된 엑스포타운 개발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개발계획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광고에 실린 이미지 및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본 광고는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엑스포 힐스테이트 | 총1,442세대 51㎡/59㎡/84㎡/101㎡/118㎡/150㎡ | 문의 061.662.7702~3**